

##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2)

### — 『개역개정』의 개정에 부쳐 —

박정수\*

#### 1. 서론

신약 그리스어의 인명·지명을 일정한 음역 원칙에 따라 표기하는 작업은 신약시대와 오늘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긴급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고유명사의 음역 원칙을 현실화하는 작업은, 지난 100여 년을 넘게 사용하여 익숙해진 음역을 쉽게 간과하거나 역행할 수 없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가장 최근에 출판된 가톨릭의 『성경』(2005)의 신약과 개신교의 『새 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을 비교하여, 새로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개신교에 있어서 성경 『개역개정』은 예배와 설교, 찬양 등 신앙과 교회 생활의 ‘교과서’와 다름없다. 이 성경을 다시 재개정하는 작업에서 『성경』과 『새 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고유명사 음역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그간 인명·지명을 관습적으로 발음하고 기억하고 사용해 왔던 독자들이 사용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성경』과 『새 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 나타난 새로운 우리말 표기법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마도 익숙해진 고유명사 발음에 거스르는 파열음 표기와 ‘표준국어’로 빈번히 사용하는 새로운 지명일 것이다. 실제로 파열음 표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적어도 수백 개의 고유명사를 거센소리

\* 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성결대학교 신약학 교수.  
pjs@sungkyul.ac.kr.

로 발음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베데스다’를 ‘벳자타’로, ‘다비다’를 ‘타비타’로, ‘그리스보’를 ‘크리스포’로 ‘가야바’를 ‘카야파’로 그리고 ‘그레스케’를 ‘크레스케’로 발음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황제 ‘글라우디오’를 ‘클라우디우스’로 ‘안디옥’을 ‘안티오키아’로 하듯, 관용(慣用)으로 사용되던 고유명사와 『표준국어대사전』<sup>1)</sup>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 등도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고유명사 작업의 딜레마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 논문의 목적은 어떤 그리스 음가 표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을 개발함이 아니라 『개역개정』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표기 방침’을 수립하려는 시도이다. 신약 성경 고유명사를 우리말로 음역 표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현재로서는 자음에서 ‘과열음 표기’와 ‘관용의 범위’ 문제로 보인다. 누군가 ‘번역은 번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경을 단지 고전으로 읽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과 삶의 영원한 ‘경전’으로 읽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에 결코 ‘거슬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의 고유명사 음역을 개정하는 원칙은, 비록 문화적 괴리감이나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개정’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먼저 밝혀 두고 싶다.

사실 이제까지 『개역개정』을 위한 일목요연한 음역 원칙은 없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마치 원칙 없이 신약 그리스어 즉, 그리스어 음가를 구성하거나 고유명사의 발음을 표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음역 표기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의 일차적인 과제는 그 일관성을 문장으로 진술하고 사례를 나열하여 음역 표기 원칙을 작성하는 것이다.

가톨릭은 『공동번역 성서』<sup>2)</sup>를 대체할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여 2005년 『성경』을 출판하고, 이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교회의 성경위원회는 『주석 성경』의 별책으로 출판하며,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과 관용·예외 목록”이라는 문서를 발간하였다.<sup>3)</sup> 이 문서는 우리말 고유명사 음역을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 그리스어를 망라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기존의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계문사, 1999), 2008년 10월 9일 개정판 이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판을 사용함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4.7.30.).

2) 『공동번역 성서』는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교회 일치(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공동 구성한 한국 성경공동번역위원회가 1977년 부활절에 편찬한 한국어 성경이다.” <https://bible.cbck.or.kr/Ncb>(2024.7.30.).

3) 이 자료는 현재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927>(2024.7.30.). 앞으로 이 자료의 인용은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 1.1.1.로 본문에 표기한다.

관용과 예외 사항을 망라한 실용적 지침서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역개정』의 고유명사 음역 원칙을 이 항목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가톨릭과 개신교의 인명·지명 표기 원칙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관용의 범주를 나누어 설명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두 번째 과제는 필자가 이전에 출판한 논문을 통하여 자세히 제시하였기에 여기서는 핵심을 요약하여 좀 더 일목요연한 ‘세칙’으로 작성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원칙과 세칙을 적용하여 신약의 고유명사 전체를 대상으로 표기하여 제시한다. 이 작업은 약 700여 개의 고유명사를 모두 음역하여 표기했으나, 지면의 한계로 이 논문에서는 『개역개정』의 표기법을 대체한 고유명사만 추출하여 제공한다. 물론, 제안된 고유명사마다 새로운 표기의 지침과 관용과 예외 사항을 별도로 설명해 두었다.

참고로 이 논문의 본문에서 그리스어 고유명사를 나열할 때는 ‘ ’를 붙이지 않고 음역 표기에만 붙인다. 그러나 예를 나열할 때는 모두 ‘ ’를 붙이지 않는다. 또한 ‘>’ 혹은 ‘<’표시는 ‘개정의 방향’을 의미한다. 즉, ‘개역개정의 표기>필자 제안’을 의미한다(예. Λυδία 루디아>리디아, Κλαύδιος 클라우디우스<글라우디오).

## 2. 자음 표기

### 2.1. 파열음 표기

우리말 자음에서 파열음이란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데 조음(調音)의 위치가 아니라 방법에 따른 분류의 하나로서, ‘ㅂ, ㅃ, ㅍ, ㄸ, ㅌ, ㅊ, ㅍ, ㅊ, ㅌ, ㅊ, ㅋ’이 있다.<sup>4)</sup> 먼저 가톨릭 『성경』의 파열음 표기 변경에 관해 언급해 보자. 이제까지 어두(語頭)에서는 거센소리를 표기하지는 않았던 『공동번역 성서』와는 다르게 『성경』은 무성 파열음 ‘ㅍ, ㅌ, ㅋ’를 어두에도 표기하여, 파열음 표기에 일관된 방침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Κλαύδιος를 ‘글라우디오>클라우디우스’로, Ταβιθά를 ‘다비타>타비타’는 물론, Πισίδιος를 ‘비시디아>피시디아’로, Πόντος를 ‘본도>폰토스’로 음역하였다. 물론 된소리도 일부 자음에 붙는 히브리어 이중점과 그리스어 이중 자음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다(“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 1.1.4.).

4) 조음 방법에 따른 부류는 파열음과 파찰음(스, 썩, 츠), 마찰음(스, 썩, 히), 유음(르), 비음(ㄴ, ㄹ, ㅇ)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자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4.7.30.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도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의 규정을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의 고유명사 표기 용례를 상당한 정도로 수용하여 제공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역개정』의 음역을 존중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머리말 제12항은 이렇게 적고 있다. “고유명사의 한글 음역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음역을 존중하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말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따른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문단 부호를 사용하거나 높임말을 사용하는 등 매우 혁신적인 번역을 시도하고 있다. 그만큼 고유명사의 음역도 『개역개정』의 음역과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이코니온’(Ικόνιον)은 관용을 따르지만, ‘다메섹’(Δαμασκός)은 ‘다마스쿠스’로, ‘가이사랴’(Καισάρεια)는 ‘카이사레아’로 표기한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가톨릭의 『성경』과는 다르게 파열음 표기 ‘프, 트, 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관된 원칙보다는 『개역개정』과 교과서나 국립국어원의 표기 용례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어떤 원칙과 관용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이전의 논문에서는 이상일과 민경식의 의견을 검토하여, 무기 무성 파열음인 ‘π, τ, κ’를 ‘ㅍ, ㅌ, ㅋ’로, 유기 무성 파열음 ‘φ, θ, χ’를 ‘프, 트, 크’로, 유성 파열음 ‘β, γ, δ’는 현재와 같이 ‘ㅂ, ㄱ, ㄷ’로 무성음 표기를 구분하자고 제안하는 이상일의 견해보다는<sup>5)</sup> 외래어 표기법을 따라 유성 파열음 ‘π, τ, κ’와 ‘φ, θ, χ’는 ‘프, 트, 크’로 하고 유성 파열음 ‘β, δ, γ’은 ‘ㅂ, ㄷ, ㄱ’로 신약의 본문 음역에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민경식의 의견<sup>6)</sup>을 지지하고 고유명사 표기에 적용했었다.<sup>7)</sup>

그러나 『개역개정』의 실제적인 개정 작업을 고민하면서, 필자는 고유명사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파열음 표기가 가져올 충격을 고려하여 파열음 ‘β, γ, δ, θ, κ, π, τ, φ, χ’는 이제까지와 같이 유성과 무성음을 구별하지 않고 ‘ㅂ, ㄷ, ㄱ’로 표기하는 원칙을 유지함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도 관용을 어디까지 존중하느냐의 문제는 남는다. 다음 장에서 세부 범주로 나누어 이 문제를 검토한다. 현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많은 고유명사에 파열음 표기가 반영되어 있고, 가톨릭의 『성경』에는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음 세대는 무성 파열음에 ‘프, 트, 크’ 도입이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세대가 지난 후 다시 『개역개정』을 개정할 때는 『새한

5)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6 (2020), 151-170(157).

6)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신약논단』 17:1 (2010), 177-200(188).

7)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170-200.

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통합하여 고유명사의 음역 원칙을 다시 조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2. 자음 일반 규칙

이제 자음을 표기하는 일반 규칙을 설명해 보자. 자음이 모음 앞에 올 때는 별도의 모음을 보충하지 않고 자음 자체만 표기한다. 또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자음에 ‘으’를 붙여 표시하면 된다(예. Μαρία 마리아, Νικάνωρ 니가노르, Στεφανᾶς 스테마나, Κλωπᾶς 글로바, Δημήτριος 데메드리오, Νίγερ 니게르). 어중과 어말의 ‘μ’는 ‘ㅁ’로 표시하나, 어두에서 ‘ν’ 앞에 올 때는 ‘ㅂ’로 표시한다(예. Ἀδμίν 아드민, Μνάσων 므나손). 그러나 λ은 Ἰσραήλ(이스라엘)이나 Σαούλ(사울)처럼 어말에는 받침으로 쓰이는데, 어중의 자음 앞에서는 ‘ㄹ’로, 모음 앞에서는 ‘ㄹㄹ’로 표시한다<sup>8)</sup>(예. Μάλχος 말코스, Ἀβίληνῆ 아빌레네, Ἑλλάς 헬라, Ἀπολλωνία 아블로니아).

다음으로 쌍자음(gemination)은 일반적으로 모음 앞의 λ처럼 해당 자음을 반복하여 표기한다. 민경식은 “① 쌍자음은 단자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② 그러나 ‘뽀뽀’(μμ)와 ‘뽀뽀’(νν)는 각각 ‘ㅁㅁ’와 ‘ㄴㄴ’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한다.<sup>9)</sup> 그러나 굳이 원칙을 ①로 하고 예외를 ②로 할 필요 없이, ②를 원칙으로 하여, 쌍자음은 그 음가 하나를 앞 음절의 받침에 표시하고, 나머지는 예외나 관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일관된 규칙이 된다(예. Βαραββᾶς 바라바>바랍바, Ναγγαί 낙개, Ἄρχιππος 아킵보, Ἐμμαοῦς 엠마오, Σουσάννα 수산나, Ἰάννης 얀네, Ἄσσος 앓소).

현재 가톨릭 성경은 쌍자음 ‘ββ’를 ‘ㅂㅂ’로, ‘γγ’를 ‘ㄱㄱ’로, ‘δδ’를 ‘ㄷㄷ’로, ‘ζζ’를 ‘ㅈㅈ’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된소리를 쓰지 않는 외래어 표기법 제3항을 따르는 『개역개정』은 쌍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에 표시하되, ‘δδ나 θθ, ττ, τθ’처럼 받침이 ‘ㄷ’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 원칙 제3항에 위배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ㅅ’으로 대체하는 현행 규칙을 유지하면 된다(예. Λύδδα 룿다>뤿다, Μαθθίας 맛디아, Ἀττάλεια 앓달리아, Μαθθάν 맛단. 관용 예. Σαδδουκαῖος 사두개<삿두개, Κολοσσαί 콜로새<꼴룿새, Θεσσαλονίκη 데살로니가<뎃살로니가). 받침에 ‘ㅅ’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자.<sup>10)</sup>

8)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191.

9) Ibid., 192.

10) 이를 위해서는 민경식이 받침에 ‘ㅅ’을 쓰지 않는 것을 일반 규칙으로 삼을 필요는 없겠다. Ibid., 189-190.

쌍자음처럼 유사한 소릿값을 가지는 ‘ξ’와 ‘ψ’는 현재 신약 성경의 고유명사에서 어두에 나오는 예는 없고, 다만 어중(語中)과 어말(語末)에만 나온다. 이 경우 그래서 ‘ξ’와 ‘ψ’는 각각 ‘ㄱㅅ’와 ‘ㅅㅅ’으로 적는다. 이때 앞의 ‘ㄱ’과 ‘ㅅ’은 받침으로 적는다<sup>11)</sup>(예. Ἀλέξανδρος 알렉산더>알렉산드로, Φῆλιξ 벨릭스>펠릭스). 그러나 Σαμμών(삼손)과 같이 앞에 다른 받침이 올 때는 ‘ㄱ’과 ‘ㅅ’ 받침은 묵음이 된다.<sup>12)</sup> 그런가 하면, ‘κχ, πφ, τθ’도 겹자음과 같이 앞의 자음을 받침으로 적는다(예. Ζακχαῖος 삭개오, Σάπφιρα 삼비라, Μαθάν 맛단). 이와 유사한 자음 표기의 또다른 규칙으로는 ‘γ, κ, χ, ξ’ 앞에 오는 ‘γ’는 ‘ㅇ’ 받침으로 적는 것이다(예. Ἀσύγκριτος 아순그리도>아싱그리도, Κεγγρεαί 겐그리아>깡그레애).

### 2.3. 기타 자음 표기

자음을 받침으로 쓰는 원칙을 외래어 표기법 제3항에는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라고 하는데, 민경식은 여기서 ‘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물론, 소수의 고유명사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어말에 오는 ‘θ’나 ‘τ’ 바로 앞 모음이 단음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남기고는 있다.<sup>13)</sup> 하지만 굳이 단모음 말고 장모음이 앞에 올 경우에도 ‘ㅅ’은 사용할 수 있는데, 가롯 유다의 출신 지명인 Ἰσκαριώθ는 ‘이스카리오트’보다는 어말을 받침에 적는 현재 가톨릭 성경의 ‘이스카리웃’이나, 『개역개정』의 ‘가리웃>가롯’을 사용하고, ‘Ἰωβήδ’도 ‘요베드’보다는 ‘요벳’으로 표기하면 된다(다만 이 경우는 히브리어 음역이기에 ‘오벳’으로 표기한다). 또 다른 히브리어의 음역을 따르는 Δαυιδ도 ‘다위드’보다는 ‘다윗’이, 복합모음이 앞에 오는 Ρουθ는 ‘루트’보다는 ‘룻’이 『개역개정』의 표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τ’나 ‘θ’가 이중으로 쓰일 때도 앞에 나오는 것을 ‘ㅅ’으로 표기하는 현재 『개역개정』의 규칙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Μαθάν과 Μαθίας을 가톨릭의 『성경』처럼 ‘마탄’과 ‘마티아(스)’라고 하지

11) 가톨릭의 『성경』은 어두에서도 파열음 표기에 ‘ㅂ, ㄸ, ㄱ’를 사용하도록 전면 개정함에 따라, “‘ξ’와 ‘ψ’가 첫소리일 때에는 각각 ‘크ㅅ’과 ‘프ㅅ’으로 적는다. 끝소리일 때에는 ‘크’와 ‘프’가 각각 앞 음절의 ㄱ과 ㅂ 받침이 된다”는 규칙을 적용한다.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3.1.).

12) 신약 고유명사에서 ‘ψ’가 사용된 사례는 총 3가지인데, 이 가운데 나머지 둘 Ἰσραηλ(아라비아)과 Αἰθίοψ(에티오피아)은 모두 모음 뒤에 사용되며, ‘표준국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13) 비교.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187(각주 26).

않고, 『개역개정』과 같이 ‘맛탄>맛단’과 ‘맛티아(스)>맛디아’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용례를 볼 때, 받침에 ‘ㅅ’을 사용하여 기존의 표기법을 준수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자음에서 고려할 또 다른 문제는 자음 앞 ‘ρ’ 표기이다. 모음이 뒤따를 때나 어말에서는 자음 일반 규칙대로 사용하면 된다(예. Ἀριστόβουλος 아리스도불로, Γερασῆνος 거라사, Νίγερ 니게르). 라틴어와 프랑스식 표기를 선호하는 가톨릭의 『성경』과는 달리 현재 『개역개정』은 영어식 표기를 선호하기에 음절 끝 받침으로 ‘르’를 회피한다(Βαρθολομαῖος 바돌로매, Βαρναβᾶς 바나바, Δέρβη 더베 등). 이 경우도 첫음절에 사용되는 경우에 ‘바르-’나 ‘베르-’, ‘세르-’등으로 표기하기보다는<sup>14)</sup> 영어식 발음표기를 따라 ‘르’를 회피하는 『개역개정』의 관용을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 세부적 예외 사항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전체 용례를 표기해 둔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표기하도록 하자.

### 3. 모음 표기

#### 3.1. ‘υ’의 표기

먼저 논쟁이 되는 ‘υ’를 살펴보자. 현재 『개역개정』은 이 음가를 ‘ι’로 표기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중모음 ‘αυ’나 ‘ευ’로 남아 있는 것에서 추측하여 고전 그리스어에서는 ‘υ’ 음가가 원래 ‘ι’였다고도 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 주장이 옳다 해도 고전 그리스어보다 더 후대에 속한 신약 성경에서는 ‘υ’를 ‘ι’로 표기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중모음 ‘ου’도 ‘우’로 표기하고 있어서 구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새 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ι’와 ‘ι’를 혼용하고 있지만, 가톨릭의 『성경』은 일관되게 ‘ι’로 표기한다.<sup>15)</sup> ‘υ’의 음가 표기에서도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는 이상일은 물론 민경식과 같이 학술적으로나 신약의 본문 음역에서는 ‘ι’로 표기함을 지지하였으나,<sup>16)</sup> 그러나 ‘ι ε ι η (η) οι υ (υι) οι가 모두 i로 발음되는’ 이른바 이오타시즘(Itazismus) 현상이 신약 성경 시대 이후에 본

14) 이전 논문에서는 이 표기를 선택했다.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175.

15)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 3.1.(각주 6.): “‘위’가 성경 그리스말 ‘υ’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로 발음된다. 보기: Διονύσιος 디오니시오스; Συρία 시리아; Τύρος 티로스⇒티로.”

16)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176.

격화되었는데,<sup>17)</sup> 현재까지도 ‘υ’의 음가는 신약시대 이후 라틴어와 현대 그리스어로 변천되어 ‘ι’로 정착된 사례가 많으므로 이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sup>18)</sup> 대표적인 예가 Τύριος ‘튀로스>티레’ 그리고 Συρία ‘쉬리아>시리아’이다. 현재의 『개역개정』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Βαβυλών ‘바벨론>바빌론’, Βιθυνία ‘비두니아>비디니아’, Λυκαονία ‘루가오니아>리가오니아’로 변경된다.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표국국어대사전』에서 사용될 만큼 세계사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에는 거의 ‘ι’로 표기되어 있고, 게다가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 이 음가 변화를 적용하여도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 3.2. 모음 일반 규칙

우선 모음에 관한 간단한 일반 규칙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음은 장단의 구별 없이 ‘아, 에, 이, 오, 우’ 등 한 모음자로 적는다.<sup>19)</sup> 장모음과 악센트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ε’와 ‘η’는 모두 ‘에’로 표기되고, ‘ο’와 ‘ω’는 모두 ‘오’로 표기된다(예. Μηδος 메디아인). 또 ‘하기(下記)’(iota subscriptum)도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므로, ‘η’나 ‘ω’도 ‘에’와 ‘오’로 적으면 된다(예. Ηρωδίων 헤로디온). 또 어두 모음에서 거친 숨표 ‘˘’가 붙었을 때 ‘ㅎ’으로 적는데, ‘아’를 ‘하’, ‘에’를 ‘헤’, ‘이’를 ‘히’, ‘오’를 ‘호’, ‘우’를 ‘후’로 표기하면 된다(예. Ἄγαθος 하가보, Ἡρώδης 헤롯). 이에 따라 히브리어 이름 여선지자 Ἄββα는 ‘안나>한나’로, 대제사장 Ἄβνας는 ‘안나스>한나스’로 된다. 그러나 ‘ρ’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예. Ρώμη 로마).

이렇게 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24개 자음과 모음에 대한 표기법을 정할 수 있겠다.<sup>20)</sup>

17) Ibid., 177.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eds.,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17th ed. (Göttingen: Vanderhoeck & Ruprecht, 1990), 19(§22), 각주 1.

18) 이에 대해서는,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176-177.

19)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 1.3.

20) Ibid., 3.1: “그리스 말의 각 철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α: 아	β: 베타(ββ:뎀)	γ: 감마(γγ:뎀)	δ: 델타(δδ:뎀)
ε: 에	ζ: 제타(ζζ:뎀)	η: 에	θ: 테
ι: 이	κ: 카	λ: 라(라)	μ: 무
ν: 누	ο: 오	π: 피	ρ: 리
σ: 시(σσ:뎀)	τ: 타	υ: 이*	φ: 피
χ: 카	ω: 오		

ξ와 ψ가 첫소리일 때에는 각각 ‘크스’와 ‘프스’으로 적는다. 끝소리일 때에는 ‘크’와 ‘프’가 각각 앞 음절의 γ과 β 받침이 된다. ① Ξανθικός 크산티코스(2마카 11:30) ② Σαμψάμης 삼

α: 아	β: 베타	γ: 가마	δ: 델타
ε: 에	ζ: 제타	η: 에타	θ: थी
ι: 이	κ: 카	λ: 라	μ: 무
ν: 누	ξ: 제타	ο: 오	π: 피
ρ(ῥ): 르	σ(ς): 스	τ: 타	υ: 이
φ: 피	χ: 카	ψ: 시	ω: 오

### 3.3. 이중모음

다음으로 이중모음 표기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자. 이중모음은 한 음절 안에 두 개의 모음이 겹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모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폐모음(닫은 홀소리)인 ‘ι’와 ‘υ’로 끝나야 한다. 이중모음과 그 발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αι: 아이	ει: 에이	οι: 오이	υι: 위이
αυ: 아우	ευ: 에우	ου: 우	

여기서 이중모음 ‘아이’는 ‘애’로, ‘오이’는 ‘외’로, ‘에우’는 어두에서 ‘유’로, ‘위이’는 ‘위’로 종종 축약된다(예. Αινέας 아네아스>애네아, Τρύφαινα 두루바이나>두리배나, Βέροια 베로이아>베뢰아, Εὐνίκη 에우니게>유니게, Λεὺι 레위).

그러므로 ‘ια, ιε(ιη), ιο, ιου, ιω’등은 이중모음이 아니라 두 개의 모음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각각 ‘이아, 이에, 이오, 이우, 이오’로 발음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이 어두에 오면 각각, ‘야, 예, 요, 유, 요’로 표기하게 된다(예. Ἰάϊρος 야이로, Ἰάκωβος 야고보, Ἰεριχώ 예리고. 관용. 여리고, Ἰορδάνης 요르단, Ἰουλία 울리아, Ἰωσήφ 요셉).

또 모음 위에 두 개의 점이 붙어 ‘모음 분리 음역 표시’(̄i)가 있는데, 이것은 이 표가 붙은 모음과 그 앞의 모음이 이중모음이 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Γάϊος는 ‘개오’가 아닌 ‘가이오’이며, Ἰουδαϊσμός는 ‘유대스모스’가 아닌 ‘유다이스모스’이 되고, 따라서 ‘유대이즘’이 아닌 ‘유다이즘’이 맞다(예. Βηθσαϊδά 벳사이다. 관용: 벳새다).

프사케스(1마카 15:23) ③ Ἀλέξανδρος 알렉산드로스(1마카 1:1) ④ Ἀπάλωμος 압살로모스 ⇒ 압살롬(1마카 11:70).

\* ‘위’가 성경 그리스말 ‘υ’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로 발음된다. 보기: Διονύσιος 디오니시오스; Συρία 시리아; Τύρος 티로스 ⇒ 티로.”

### 3.4. 모음의 단축 변화

문제는 이중모음이 단축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이런 모음과 이중모음의 동화 및 축약(ει, υ, υι, οι→ι, αι→ε, ω→ο) 현상으로서 ‘이타시즘’을 언급했다. 특히 이중모음은 고전 그리스어에서 코이네 그리스어로 변천하면서 여러 가지 음가로 변화를 하였다. 여기서 ‘αι>ε’ 현상은 우리말 음역에서도 ‘아이>애’로 표기하듯이 ‘축약’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ει’다음에 모음이 올 때 일어나는 ‘ει>ε’는 초기 헬레니즘 시대에는 자취를 찾을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미 변화된 채로 나타난다. 그 변천 흔적이 나타난 사례가 Ἄρειος Πάγος(행 17:19, 22)가 ὁ Ἀρεοπαγίτης라는 관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sup>21)</sup> Αινέας(행 9:33-34)는 Αινείας의 변화 결과다. 또 신약에서 ‘ει’는 히스기야나 요시아 등 ‘-야’로 끝나는 히브리어 외래어 이름을 그리스어로 음역할 때 ‘-ίας’로 남기 때문에 ‘ει>ε’가 일어나지는 않는다(예. Ἀνανίας 하나냐>하나니아).<sup>22)</sup>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서는 ‘ει>ι’의 이타시즘 현상만 반영하여 ‘이’로 음역하면 된다(예. Καισάρεια 가이사랴> 카이사리아, Θυάπειρα 두아디라, Λαοδίκεια 라오디게아>라오디기아).

## 4. 관용의 범주

마지막으로,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5항도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인명·지명의 세부 규정에서도 자주 ‘관용을 존중’하거나 ‘따른다’고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관용으로 보느냐, 또 개정하면 어떤 원칙으로 기존의 관용을 변경할지 토론이 필요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범주별로 나누어보자.

### 4.1. 어말 ‘-ς’ 생략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그러므로 인명과 지명의 우리말 어말에서 일어나

21)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24(각주 2).

22) *Ibid.*, 31(§38).

는 ‘-스’의 생략은 인명에서는 관용을 유지하고 지명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정하되, 각각 세부적 범주로 나누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sup>23)</sup> 그럼 어떤 원칙과 관용의 방침을 수립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톨릭 『성경』은 “신약 성경의 경우 널리 알려진 고유명사가 -ης, -ας, -ος, -ους로 끝나는 경우 이를 생략하고 음역한다”고 진술한다.<sup>24)</sup> 이름에서는 광범위하게 관용을 인정해야만 한다. 사도들의 이름과 복음서 저자, 7인의 헬라계 유대인 등에서 나타나듯이 ‘-ς’앞에는 다양한 모음 형태가 붙어 있고, 이런 모음 앞의 자모에 따라 다양한 발음이 나타난다(예. Πέτρος 베드로, Φίλιππος 빌립, Ανδρέας 안드레, Μαθθαῖος 마태, Μάρκος 마가<마르고, Λουκάς 누가, Ἰωάννης 요한 등, Ἡρώδης 헤롯, Ἐμμαοῦς 엠마오, Στέφανος 스테반 행 6:3, 비교. Στεφανᾶς 스테바나 고전 1:16). 성경의 이름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례로 나와 있는 12사도와 복음서 저자 등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그 외의 대부분의 음역은 『개역개정』의 관용을 따르도록 한다(다만, 앞에서 언급한 ‘υ’는 ‘ㅣ’로 한다).

그러나 지명에서는 가능한 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교과서 등 현대 지명 표기에 동화되도록 하는 편이 우리의 취지에 맞는다. 예를 들어, Αντιπαρίς나 Ἀσσος, Γαλατία는 제안된 규칙에 따라서 ‘안디바드리’와 ‘앗소’, ‘갈라디아’로 하지만, Εὐφράτης나 Δεκάπολις, Μίλητος와 같이 현대국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은 ‘유프라테스’나 ‘데카폴리스’, ‘밀레토스’로 파열음까지 표기하는 현대의 지명 표기를 택한다. 하지만, Ἐφεσος나 Κόρινθος, Θεσσαλονίκη와 같이 현재까지 사용되는 지명이라 할지라도 서신서에 사용되는 지명들은 ‘에페소스’나 ‘코린토스’, ‘테살로니키’가 아니라, 『개역개정』의 관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에베소’나 ‘고린도’, ‘테살로니카’로 한다.

#### 4.2. 고대 팔레스타인 지명 ‘-α’

이 문제 역시 이전 논문에서 다루었고<sup>25)</sup> 다른 측면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명을 나타내는 행정단위로 어미에 ‘-α’가 자주 사용되고, 드물지만

23)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178.

24)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 3.12. “여기서 ‘널리 알려진’의 기준은 열두 사도, 성경 저자, 성인 이름, 그리고 관습 등에 바탕을 둔다. ① Ανδρέας 안드레아(마 4:18) ② Μαθθαῖος 마태오(마 10:3) ③ Ἡρώδης 헤로테(마 14:1) ④ Ἐμμαοῦς 엠마오(눅 24:13) 그러나 여성과 혼동할 여지가 있는 남성 이름의 경우는 그대로 둔다. Στεφανᾶς 스테파나스(고전 1:16).”

25)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 183-186.

‘-τις’도 나온다. 이 어미에는 앞 음절을 연결하는 모음 ‘ι’가 따라다닌다(예. Μακεδονία 마케도니아, Λυκαονία 리카오니아, Τραχωνίτις 트라고닛). 또 앞 음절에 따라 ‘-αια, -εια, -ια 등’으로도 나타난다(예. Ἰουδαία, Γαλιλαία, Σαμάρεια). 이들은 헬레니즘 시대 행정구획을 표시하는 단위로서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행정단위는 지속되었는데, 오늘날 지방 총독(Prokurator)이 지배하는 주(州)나 수도 외의 ‘지방’(province)에서 나타난다(예. Καισάρεια 카이사리아). 고대 팔레스타인은 코일레 시리아(Κοίλη Συρία, 마카상 10:69)에 속한 ‘지방’으로서, 소아시아나 그리스 연안의 ‘주(州)’보다는 더 작은 시리아 총독이 관할하는 ‘지방’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 참고로 좀 더 좁은 의미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명을 세분하기는 어렵기에, ‘주, 지방, 도시, 마을’ 정도의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sup>26)</sup>

역사적으로 고대 팔레스타인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재가로 4개의 영지로 나누어 유대아와 사마리아는 아르켈라오스에게, 나머지는 갈릴래아와 페레아를 안티파스에게 주고 요르단 북동부의 바타나아와 가올라니티스, 트라코니티스 등을 필립에게 주었다(『유대전쟁사』, 2.94).<sup>27)</sup> 남쪽부터 지명을 나열하자면 Ἰουμαία와 Ἰουδαία, Σαμάρεια, Γαλιλαία,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 지방의 Πέροια, Γαυλανίτις, Τραχωνίτις 등이 있다.<sup>28)</sup> 이 모든 지명에서 보듯이 한결같은 행정단위 명 ‘-α’와 ‘-τις’가 들어 있다. 이렇게 지명에서 ‘-α’를 표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갈릴래아’와 ‘유대아’는 예수의 주 활동 지방으로 자주 등장하기에 더욱 그렇다.

『개역개정』은 두 지명을 ‘갈릴리’와 ‘유대’로 통일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명으로서 ‘유대’(Ἰουδαία)는 신약에만 사용되고, 구약에는 인명과 지명, 국명으로서 ‘유다’만 사용된다. 그러므로 일단, Ἰουδαία(유대아)를 히브리어의 음역 표기로 볼 이유는 없다. 문제는 『개역개정』에서 가장 빈번히 나오는 이 Ἰουδαία를, 명사(혹은 형용사) Ἰουδαῖος[유대인(의) 혹은 유대교(의)]와 구분하여 음역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용어의 혼란스러

26) M. 행엘, 『유대교와 헬레니즘』 1권, 박정수역 (파주: 나남, 2012), 104. ‘코일레 시리아’ 지방을 ‘재무장관’이나 ‘장군’이 지배하였다면, 이곳은 ‘휘파르코스’가 지배하는 곳으로서, 그 아래에는 ‘코마르케스’가 지배하는 촌락 ‘코메’가 있었다. ‘-α’와 동일한 규모의 행정단위는 ‘-τις’였다(예. 암마니티스, 가올라니티스, 갈라디티스 등).

27) F. 요세푸스, 『유대전쟁사』 1권, 박정수, 박찬웅 공역 (파주: 나남, 2008), 194.

28) 상세한 지도는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Greek-English New Testament*, 28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속 표지, “신약시대의 팔레스타인” 참고.

은 사용을 피하려고 가톨릭의 『성경』은 ‘유대아’를 사용하지 않고 ‘유다 지방’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갈릴리’는 ‘갈릴래아’로 『공동』의 음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이두매아’와 ‘이투래아’도 ‘-아’로 음역).

필자의 판단으로는 『개역개정』이든 가톨릭의 『성경』이든 팔레스타인 지명의 음역은 ‘-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신약시대 팔레스타인의 행정체계를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중간기 이후 헬레니즘 시대에서 로마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배경을 전달하기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은 둘을 구분하여 지역명을 ‘유대아’(Ιουδαία)로 하고, 나머지 ‘유대’(Ιουδαίος)는 명사(혹은 형용사)로서 ‘유대인(의)’ 혹은 ‘유대교(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유사하게 『개역개정』이 영어의 음역을 따라 사용하는 ‘갈릴리’도 ‘-아’가 들어가야 한다. 뵘젠(W. Boesen)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명은 구약 6곳에서 ‘갈릴’(גַּלְיָלָה)로 나오는데(수 20:7; 21:32; 왕상 9:11; 왕하 15:29; 대상 6:76; 사 9:1=8:23), 그 뜻은 ‘구역’ 혹은 ‘영역’이라는 뜻이다. 이들 중 앞의 세 곳에서 ‘갈릴리의 게데스’(גַּלְיָלָה וְגֵדֵס)라고 사용되는데, 이는 ‘갈릴’의 북쪽에 있는 도피성이었다고 한다.<sup>29)</sup> 우리의 논점은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스어 음역이다. ‘갈릴래아’(Γαλιλαία)라는 음역은 칠십인역에서 나타나는데(위의 6곳 이외에도 1마카 5:14 등 14번), 아마도 이사야에서 처음으로 “이방의 갈릴리”(גַּלְיָלָה וְגֵדֵס)라는 표현에서 ‘갈릴라’(Γαλιλα)라는 발음이 나타나고 여기에 그리스어 지방의 어미 ‘-ια’가 붙었다고 하겠다.<sup>30)</sup>

이렇게 이 지명은 이미 헬레니즘 시대로부터 히브리어 ‘갈릴’보다 ‘갈릴래아’라는 그리스어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 ‘갈릴리’라는 히브리어의 영어식 음역은 재고되어 ‘-α’로 끝나는 ‘갈릴래아’로 하고, 구약의 ‘갈릴리’ 6곳을 바꾸어야 한다. 같은 기준에 따라 고대 팔레스타인의 나머지 지방의 음역은 현재의 Σαμάρεια ‘사마리아’(εἰς)는 그대로 유지되고, Ἰουδαία를 ‘이두매>이두매아’로 바꾸고, 파열음을 포함하는 Ἰουραῖος를 ‘이투래>이투래아(인)’와 Καισάρεια를 ‘가이사라>카이사리아’(εἰς)로 바꾸면 되겠다.

29) 이 본문들을 전승사적으로 연구한 뵘젠(W. Bösen)은, 이 지역이 처음에는 요르단 서쪽의 산악지대 동쪽의 특정 지역(“케데스 주변지역”)에서 솔로몬 시대에 상부 고지대와 하부 저지대로 확대되었다가, 북왕국 멸망 이후 이방인들의 거주하게 되면서 “이방인의 갈릴리”(사 8:23)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W. 뵘젠, 『예수시대의 갈릴래아』, 황현숙 옮김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1998), 22-27.

30) Ibid., 21.

### 4.3. 히브리어와 라틴어 음역

신약 그리스어가 차용한 외래어로서 히브리어 음역 표기의 기본 원칙은 앞에서 설명한 지명과 마찬가지로, 인명에서도 구약과 동일한 고유명사는 원천어(原泉語)인 히브리어로 표기하되, 그리스어로 널리 통용되는 경우는 그리스어로 표기한다. 라틴어의 경우에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여 그리스어보다 우세한 고유명사는 라틴어로 음역하고, 무성 파열음 ‘프, 카, 트’과 어말 ‘-스’를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이 문제는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사례별로 정리된 결과를 아래 6.3.의 고유명사 표기(제안)를 참고하면 되겠다.

### 4.4. 문화적, 종교적 집단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민족에서 파생된 집단명과 언어를 어떻게 ‘번역’ 표기하는지를 다루어보자.

먼저, 이름에서 파생된 것들로는 학파나 종파 등이 있다. 신약시대에도 학파와 종파 및 정치적 당파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집단들이 있었다. 『개역개정』은 이들을 ‘-파, -당, -인’과 같은 어미를 고유명사 끝에 붙여 표현하고 있다. 이를테면, 종교적인 집단을 ‘바리새인들’(οἱ Φαρισαῖοι)과 ‘사두개인들’(οἱ Σαδδουκαῖοι)이라고 표현하거나, 어느 곳에서는 ‘사두개인의 당파’(αἵρεσις τῶν Σαδδουκαίων)나 ‘바리새(종)파’(αἵρεσις τῶν Φαρισαίων) 혹은 ‘나사렛 종파’(αἵρεσις τῶν Ναζωραίων)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헤롯당’(οἱ Ἡρωδιανοί), ‘젤롯인’(ὁ ζηλωτής), ‘니콜라당’(ὁ Νικολαΐτης)과 같이 대표인 이름의 집단으로 표시하거나, ‘에피쿠로스’(Ἐπικούρειος)와 ‘스토아’(Στοικός) 같은 철학파로 구분하기도 한다.

고대 시대 학파, 종파 및 정치 당파는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종파’(αἵρεσις)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 경우만 ‘-파’로 번역하고, 없는 경우는 ‘-인’ 혹은 ‘-사람’으로 통일하자. ‘바리새’나 ‘사두개’와 같은 고유명사에서 파생된 종파의 경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하고, 인물 중심의 집단의 경우 ‘헤롯 당’(Ἡρωδιανοί)은 ‘헤롯 사람들’로, ‘니콜라 당’(Νικολαΐτης)은 ‘니콜라 사람(들)’ 등으로 통일한다. 그러나 ‘종파’가 명시될 때에는 ‘-당’이라는 말 대신 ‘-파’로 통일함이 좋겠다(예. αἵρεσις τῶν Σαδδουκαίων[행 5:17] 사두개인의

당파>사두개파, αἵρεσις τῶν Φαρισαίων 바리새파, τῆς τῶν Ναζωραίων αἵρέσεως[행 24:5] 나사렛 이단>나사렛파).

이보다는 적은 범주이지만, 지역 이름에서 파생된 인종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 표현들도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어미로 ‘-ης, -ίτης, -ος, -ιος, -αῖος, -ηνός, -εύς 등’이 있는데 모두 지역명에 ‘-사람’ 혹은 ‘-인’을 붙이면 된다(예. Γαλάτης 갈라디아인, Ἰσραηλίτης 이스라엘인, Ἀθηναῖος 아테네인, Ἐφέσιος 에베소인, Δαμασκηνός 다마스쿠스인, Θεσσαλονικεὺς 테살로니가인, Ἀλεξανδρεὺς 알렉산드리아인). 그러나 ‘헬라스’에서 파생된 ‘헬라인’(Ἕλλην)이나 ‘헬라파’(Ἑλληνιστής)와 같이 좀 더 광범위한 문화적 범주에 속한 인종과 출신자는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자.<sup>31)</sup>

현재 『개역개정』은 초창기 『개역한글』에서부터 그리스어 ‘헬라스’(Ἑλλάς)에서 어말 ‘-스’를 생략하는 규칙을 따라 ‘헬라’로 음역하여 파생어 포함 총 38회 사용한다. 구약에서 5회 나타나는데, 모두 ‘헬라인들(의)’(Ἑλλήνων)로 나온다(단 8:21; 10:20; 11:2; 욥 3:6; 슥 9:13).<sup>32)</sup> 신약에서 Ἑλλάς는 그리스 본토를 가리키는 지역명으로는 단 1회 사용되고(행 20:2), ‘헬라인’과 ‘헬라 여자’(Ἕλλην, Ἑλληνίς)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간혹 ‘헬라파(유대인)’(Ἑλληνιστής 행 6:1; 9:29; 11:20)나 ‘헬라어(형)/헬라 말로(부)’(Ἑλληνιστί 요 19:20; 행 21:37. 비교. 계 9:11)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후계자를 자처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방 세계를 정복하였는데, 이 동방 세계에서 그리스인의 언어(아테네 방언)가 통용어로 사용되고 그리스인의 삶의 방식이 정착되었다. 이 헬레니즘 문명은 서방으로도 확장되어 로마의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까지 확장되었는데, 이탈리아 남부는 ‘대(大)그리스’(Großgriechenland)라고도 불렸다.<sup>33)</sup> 서양 고대사에서 ‘헬레니즘’과 그 이전 ‘고전 그리스’ 두 시대를 통합하여 명하는 ‘**헬라스(회랍)**’라는 우리말 용어는 이미 사용되지 않고, 대신 ‘그리스’(Greece, Greek)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가톨릭의 『성경』과 『새번역』을 비롯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헬라’ 대신 ‘그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적당한 용어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 역시 두

31) 아래의 논의는 최초로 박정수, “신구약 중간사와 관련한 번역 용어, 그리스어 인명 표기 및 유대교 문헌표기법 통일 제안”, 『신약논단』 20 (2013), 537-571에서 시작되었음.

32) 칠십인역에서는 사 9:11(τοὺς Ἕλληνας)의 ‘블레셋 사람’을 ‘서쪽에서 오는 그리스인들’이라고 번역하며(사 9:12 『개역개정』), 렘 46:16과 50:16의 ‘포악한 칼’과 ‘압박하는 칼’을 ‘그리스의 칼’(μαχαίρας Ἑλληνικῆς)로 번역하고 있다.

33) H. Windisch, “Ἑλλην”, G. Kittel, ed., *Theologisches Woe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I*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Verlag, 1933-1979), 502-503.

시대를 구분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 용어로는 신약의 문화적 문맥인 ‘헬레니즘 시대’만의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개역개정』의 ‘헬라’를 ‘헬레니즘’ 대용어(代用語)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지명으로서 유일하게 나오는 사도행전 20:2의 Ἑλλάδα (Ἑλλάς의 여성, 목적격, 단수 명사)만큼은 ‘헬라스’로 차별하여 그리스 반도의 북부 마케도니아와 구분되는 ‘그리스 본토’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은 Ἑλλην과 Ἑλληνιστί(혹은 Ἑλληνικός)인데, 각각 ‘헬라인’과 ‘헬라어’로 유지하자.

그런데 신약의 배경인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그리스 본토 출신의 사람도 있었고,<sup>34)</sup> 그리스 본토 밖 헬레니즘 세계에서 그리스어로 말하며 그리스적 사고방식을 가진 다양한 지역과 민족 출신의 사람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주로 이전에 이른바 ‘야만인들’이었던 지역의 토착 상류 지배계층으로서 그리스 본토인 즉 ‘헬라스인’과는 구별되는 ‘Hellenist’(Ἑλληνιστής)이었다. 『개역개정』은 이런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행 6:3; 9:29; 11:20)이라고 ‘번역’한다. 사도행전 6:1 이하에 의하면, 이들의 대표자 7인 중 6인은 ‘스테파노스, 필립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Στέφανος, Φίλιππος, Πρόχορος, Νικάνωρ, Τίμων, Παρμενάς)라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고, 유일하게 니콜라오스는 안티오키아 출신의 이방인 개종자(Νικόλαον προσήλυτον Ἀντιοχέα)였다. 이들은 분명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sup>35)</sup> 그러므로 Ἑλληνιστής의 어원과 역사적·문화적 문맥으로 볼 때 가톨릭 『성경』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처럼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설명한 문화적 속성을 고려한다면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사도행전 9:29에 바울과 논쟁하는 Ἑλληνιστάς에 대해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복음 선포가 유대인 지역을 넘어 안티오키아까지 확장된 ‘이방인’ 선교 사건이었다

34) ‘Ἑλλάς’는 원래 호메로스가 사용할 때는 ‘그리스 북부지역’ 테살리아인을 지칭하였는데, 헤로도토스가 사용하면서부터 그리스인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H. Bietenhard, “Ἑλλην”, C. Brown,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1975-1978).

35) 나는 헝겔(M. Hengel)의 저작 『유대교와 헬레니즘』에서만은 ‘그리스어 사용 유대인들’이라고 번역했다. 헝겔이 후에 또 다른 책에서 자세히 논구하여 ‘그리스어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M. Hengel,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J. Bowden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1-29, 특히 8-10.

(행 11:18). 19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Ἑλληνιστάς)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개역개정』)

여기서 어떤 사본 즉, 일부 파피루스와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sup>36)</sup>은 Ἑλληνιστάς를 Ἑλληνας로 읽는다. 여기서 본문비평을 판단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Nestle Aland 27/28판의 원문대로 Ἑλληνιστάς로 읽는다면 이들의 정체성은 ‘헬레니즘계 사람’이고,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은 사도행전 6:1에 등장한 바로 그 Ἑλληνιστάς 즉, ‘헬레니즘계 유대인’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사도행전 6:18부터 전개되는 문맥상 이방인 전도가 아니라 유대인 전도인 셈이다. 그러나 Ἑλληνας를 본문으로 읽는다면 ‘헬라인’ 즉, ‘헬라스인’이 되고 문맥상 이해가 된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Ἑλληνιστάς와는 다르게 “헬라인에게도”라고 번역하고, Ἑλληνιστάς를 각주로 처리하여 ‘헬라파 유대인에게도’라고 표기해 두고 있다.

요약하자면, 시대구분이 없는 일반적인 ‘그리스’보다는 ‘헬라’(스)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차라리 일단 지명으로서 유일하게 나오는 사도행전 20:2의 Ἑλλάδα(Ἑλλάς의 여성, 목적격, 단수 명사)만큼은 ‘헬라스’로 음역하여 그리스 반도의 북부 마케도니아와 구분되는 ‘그리스 본토’로 구분하고, Ἑλληνιστής(Hellenist)는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번역’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은 Ἕλληνας와 Ἑλληνιστί(혹은 Ἑλληνικός)인데, 각각 ‘헬라인’과 ‘헬라이어’로 그대로 표기하면 되겠다.

## 5. 결론과 세부 대안

### 5.1. 결론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개역개정』의 고유명사 표기 원칙(案)’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이 원칙을 적용하여 약

36) Ἑλληνας B<sup>74</sup> κ<sup>2</sup> A D\*.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Greek-English New Testament*, 28<sup>th</sup>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417(20절 하단).

700여 개의 ‘신약 인명과 지명 및 기타 목록’을 제안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표기 원칙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의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과 관용·예외 목록”의 순서를 비교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의 ‘제3장 표기 세칙’ 순서도 고려하였다.

지면상의 이유로 마지막 표에는 『개역개정』을 재개정한 목록’만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전체 목록에는 『개역개정』과 같지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과 다른 고유명사도 약 200여 개가 된다. 목록의 ‘설명’란에서 보듯이,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지명에 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표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안했다. 왜냐하면, 지명은 인명보다는 훨씬 더 시대적 지속성과 다국어들 사이의 연속성이 크기 때문에 『개역개정』의 세계화된 독자들과 젊은 세대 독자들에게 성경과 현대 지명의 괴리감을 좁혀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인명의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었다.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조차 한두 번 나오는 이름을 굳이 변경하여 독자들에게 부담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성경의 이름은 서양 문화에 이미 ‘토착화’되어서 동양 문화권에 속한 한글과 함께 발음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차이를 주는 모음 ‘u’는 원칙대로 ‘이’로 표기했다. 그래서 그리스어(혹은 히브리어) 원지음 표기에 가장 가까운 방식을 추구하되, 우리말 『개역개정』의 독자들에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 발음 표기에 머무르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다.

## 5.2. 『개역개정』의 고유명사 표기 원칙(案)

### 5.2.1. 그리스어 음역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제정 고시한 다음 외래어 표기법을 기준으로 다음 원칙을 따른다.

- 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나.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다.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라.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 마.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바. 그리스어의 악센트는 달리 표기하지 않는다.
- 사. 모음은 장단의 구별 없이 ‘아, 에, 이, 오, 우’ 등 한 모음자로 적는다.

### 5.2.2. 그리스어의 각 철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α: 아	β: 베틀	γ: 가	δ: 디
ε: 에	ζ: 즈	η: 에	θ: 티
ι: 이	κ: 카	λ: 리	μ: 미
ν: 니	ξ: 카스	ο: 오	π: 피
ρ(ῥ): 리	σ(ς): 스	τ: 티	υ: 이
φ: 피	χ: 카	ψ: 피스	ω: 오

5.2.3. 자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 원칙

1) 자음이 모음 앞에 올 때는 별도의 모음을 보충하지 않고 자음 자체만 표기한다.

예. Μαρία 마리아, Λυδία 리디아.

2)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자음에 ‘으’를 붙여 표시한다.

예. Δημήτριος 데메드리오, Νικάνωρ 니가노르, Κλωπᾶς 클로바, Νίγερ 니게르.

3) 파열음 β, γ, δ, θ, κ, π, τ, φ, χ은 ‘ㅂ, ㄷ, ㄱ’로 표기한다.

4) γ, κ, χ, ξ 앞에 오는 γ는 ‘ㅇ’ 받침으로 적는다.

예. Ἀσύγκριτος 아싱그리도, Κεγχεραί 쟁그레에.

나. 세부 규칙

1) 겹자음(gemination)은 앞음절의 받침과 나누어 표시한다.

예. Βαραβᾶς 바랍바, Σουσάννα 수산나, Ἰάννης 얀네, Ἄσσος 앓소.

관용: Κολοσσαί 콜로새<콜룻새, Θεσσαλονίκη 데살로니가<뎃살로니가.

2) κχ, πφ, τθ 및 ξ도 겹자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예. Ζακχαῖος 삭개오, Σάπιφρα 샵비라, Μαθᾶν 맛단, Ἀλεξανδρῖνος 알렉산드리아(인).

3) 파열음이 어말에 쓰일 때 받침으로 적되 δ와 θ는 ‘ㅅ’으로 표기하고, 어중(語中) δδ는 경우는 ‘ㅅㄷ’으로 표기한다.

예. Ἰάκωβ 야곱, Γῶγ 곱, Ἰωσήφ 요셉, Δαυῖδ 다윗, Ναζωρεθ 나사렛, Λύδδα 릿다, Μαθθίας 맛디아.

관용. Θαδδαῖος 다대오<닷대오, Σαδδουκαῖος 사두개인<삿두개인.

4) λ는 어중의 자음 앞과 어말에는 ‘ㄹ’ 받침으로, 모음 앞에서는 ‘ㄹㄹ’로, 표시한다. 어중 λλ도 ‘ㄹㄹ’로 표기한다.

예. Σαλμώνη 살모네, Σαούλ 사울, Ἀβιληνή 아빌레네, Ἀπολλωνία 아볼로니아.

5) 어중과 어말의  $\mu$ 는 ‘ $\rho$ ’로 표시하나, 어두에서  $\nu$ 앞에 올 때는 ‘ $\mu$ ’로 표시한다.

예.  $\Delta\alpha\lambda\mu\alpha\nu\theta\acute{\alpha}$  달마누다,  $\Sigma\alpha\lambda\acute{\eta}\mu$  살렘,  $M\nu\acute{\alpha}\sigma\omega\nu$  므나손.

#### 5.2.4. 모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음은 장단의 구별 없이 ‘아, 에, 이, 오, 우’ 등 한 모음자로 적는다.

예.  $M\eta\delta\omicron\varsigma$  메디아인.

2) 장모음과 악센트, ‘ $\iota$ 하기(下記)’(iota subscriptum)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다.

3) 모음에 붙은 거친 숨표 ‘ $\`$ ’는 ‘ $\grave$ ’으로 적는다. 그러나 ‘ $\rho$ ’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  $\text{Ἡ}\rho\omega\delta\acute{\iota}\omega\nu$  헤로디온,  $\text{Ἑ}\rho\mu\eta\grave{\varsigma}$  헤르메스,  $\text{Ἑ}\sigma\rho\acute{\omega}\mu$  헤스론,  $\text{Ῥ}\acute{\omicron}\mu\eta$  로마.

4) 이중모음은 다음과 같이 음역하고, 축약과 단축 현상을 반영하여 표기한다.

$\alpha\iota$ : 아이	$\epsilon\iota$ : 에이	$\omicron\iota$ : 오이	$\upsilon\iota$ : 위이
$\alpha\upsilon$ : 아우	$\epsilon\upsilon$ : 에우	$\omicron\upsilon$ : 우	

예.  $A\iota\nu\acute{\epsilon}\alpha\varsigma$  아니네아>애네아,  $K\lambda\alpha\upsilon\delta\acute{\iota}\alpha$  클라우디아,  $A\nu\tau\acute{\iota}\omicron\chi\epsilon\iota\alpha$  안티오키아,  $K\alpha\iota\sigma\acute{\alpha}\rho\epsilon\iota\alpha$  카이사레이아>카이사리아,  $E\upsilon\nu\acute{\iota}\kappa\eta$  에우니게>유니게,  $B\acute{\epsilon}\rho\omicron\iota\alpha$  베로이아>베뢰아,  $\text{Ἰ}\delta\omicron\upsilon\mu\alpha\acute{\iota}\alpha$  이두마이아>이두매아,  $\Lambda\epsilon\upsilon\acute{\iota}$  레위.

5)  $\iota\alpha$ ,  $\iota\epsilon(\eta)$ ,  $\iota\omicron$ ,  $\iota\upsilon$ ,  $\iota\omega$ 가 첫소리로 쓰일 때는 각각 ‘야, 예, 요, 유, 요’로 적는다.

예.  $\text{Ἰ}\acute{\alpha}\tau\iota\rho\omicron\varsigma$  야이로,  $\text{Ἰ}\acute{\alpha}\kappa\omega\beta\omicron\varsigma$  야고보,  $\text{Ἰ}\epsilon\rho\iota\chi\acute{\omega}$  여리고(관용<예리고),  $\text{Ἰ}\omicron\rho\delta\acute{\alpha}\nu\eta\varsigma$  요르단,  $\text{Ἰ}\omicron\upsilon\lambda\acute{\iota}\alpha$  율리아,  $\text{Ἰ}\omega\sigma\eta\phi$  요셉,  $\text{Ἰ}\omega\beta\eta\delta$  요벳.

#### 5.2.5. 고유명사가 -ης, -ας, -ος, -ους로 끝나는 경우 이를 생략하고 음역한다.

예.  $A\nu\delta\rho\acute{\epsilon}\alpha\varsigma$  안드레,  $\text{Ἡ}\rho\acute{\omega}\delta\eta\varsigma$  헤롯,  $\text{Ἐ}\mu\mu\alpha\omicron\upsilon\varsigma$  엠마오,  $\Sigma\tau\acute{\epsilon}\phi\alpha\nu\omicron\varsigma$  스테반.

비교.  $\Sigma\tau\epsilon\phi\alpha\nu\tilde{\alpha}\varsigma$  스테바나.

관용.  $A\lambda\phi\alpha\acute{\iota}\omicron\varsigma$  알패오,  $M\alpha\theta\theta\alpha\acute{\iota}\omicron\varsigma$  마태,  $M\tilde{\alpha}\rho\kappa\omicron\varsigma$  마가,  $\text{Ἐ}\rho\epsilon\sigma\omicron\varsigma$  에베소,  $K\acute{\omicron}\rho\iota\nu\theta\omicron\varsigma$  고린도,  $\Theta\epsilon\sigma\sigma\alpha\lambda\omicron\nu\kappa\epsilon\upsilon\varsigma$  데살로니가 등.

5.2.6. 외래어 차용어의 음역은 다음과 같다.<sup>37)</sup>

가. 히브리어

1) 구약의 고유명사가 신약에 나올 때 히브리어의 표기에 따라 적는다.

예. Ἐμμανουήλ 임마누엘(עִמָּנוּאֵל), Ῥοβοάμ 르호보암(רֹבֹעַם), Βόες 보아스(בָּעֵשׂ).

2) 히브리어에서 온 고유명사라 할지라도 그리스어로 널리 통용되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음역한다.

예. Ἀνανίας 하나냐(אֲנָנְיָהּ), 초르(צֹר)>Τύρος 티로스>티레(현대어).

3) 헬레니즘 시대에 이름이 바뀐 지명은 신약에 나오는 대로 음역한다.

예. Πτολεμαῖς 프톨레마이시스(פְּטוּלְמַיִס, 원지음표기. 행 21:7), Γαλιλαία 갈릴래아(גַּלְיָלָא).

나. 라틴어

1) 라틴어에서 유래하여 그리스어보다 우세한 고유명사는 라틴어로 음역한다.

2) 라틴어의 음역은 무성 파열음 ‘프, 카, 타’과 어말 ‘-스’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1. 황제 Κλαύδιος(행 18:2) 클라우디우스<글라우디오, Καῖσαρ Αὐγούστος(눅 2:1)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이사 아구스도.

예2. 키프로스의 로마 총독 Σέργιος Παῦλος(행 13:7)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서기오 바울, 그러나 아카이아의 로마 총독 Γαλλίων 갈리오(그리스 이름).

예3. 로마 장교 Κορνήλιος 코넬리우스<고넬료, Ἰούλιος 율리우스<율리오.

예4. 라틴어 성을 가진 비유대인 Τίτιος Ἰούστος 티티우스 유스투스<디도 유스도, 그리스어 이름이 아닌 Νηρέύς(롬 16:15) 네레우스<네레오, 반면 Ἐραστος(2명: 행 19:22, 딤후 4:20; 롬 16:23) 에라스도(그리스 이름).

예5. ‘다메섹’(δᾶμασκ) > 다마스코스(Δαμασκός) > 다마스쿠스.

5.2.7.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미 쓰이는 고유명사들의 음역은 관용어로 받아들인다.

1) 『개역개정』의 전통으로 사용되어 온 성경 각 책명, 사도 이름 등.

2)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거나 교과서에서 사용되어 일반인들의 귀에 익은 것.

3) 국립국어원과 같은 공식 기관에서 출판한 용례집에 들어있는 것.

37) 이 규칙은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 3.10.을 준용함.

### 5.3. 『개역개정』 신약의 고유명사 목록(案)

부록의 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인명과 지명을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제5판(GNT<sup>5</sup>, 2014)과 네슬-알란트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제28판(NTG<sup>28</sup>, 2012)을 원문으로 하여 제시하고, 『개역개정』(1998)과 가톨릭의 『성경』(2005), 그리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과 일일이 비교 검토하여 ‘『개역개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

####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개역개정』의 개정, 고유명사의 음역, 신약의 고유명사, 성경 고유명사 목록.

Bible Translation, Revis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Transcription of New Testament Proper Names, Proper Names of New Testament, List of Biblical Proper Nouns.

(투고 일자: 2024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24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9월 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계문사, 1999(2008 개정판),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2024.7.30.).
- 민경식, “성경 그리스어의 우리말 음역 원칙 제안”, 『신약논단』 17 (2010), 177-200.
- 박정수, “신구약 중간사와 관련한 번역 용어, 그리스어 인명 표기 및 유대교 문헌 표기법 통일 제안”, 『신약논단』 20 (2013), 537-571.
- 박정수, “신약 고유명사의 새로운 표기법 제안-『개역개정』 사도행전의 인명과 지명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51 (2022), 170-200.
- 뵘젠, W., 『예수시대의 갈릴래아』, 황현숙 역, 병천: 한국신학연구소, 1998.
- 요세푸스, F., 『유대전쟁사』 1권, 박정수, 박찬웅 공역, 파주: 나남, 2008.
- 이상일, “신약성경 그리스어 외래어 표기 방식에 대한 제안과 그 적용-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6 (2020), 151-170.
-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성경 고유명사 음역 원칙과 관용·예외 목록”, <https://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927>(2024.7.30.).
- 행엘, M., 『유대교와 헬레니즘』 1권, 박정수역, 파주: 나남, 2012.
- Bietenhard, H., “Ελλην”, C. Brown,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1975-1978.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eds.,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17th e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 Hengel, M., *Between Jesus and Paul: Studies in the Earliest History of Christianity*, J. Bowden tr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Greek-English New Testament*, 28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 Windisch, H., “Ελλην”, G. Kittel, ed.,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I*, Stuttgart; Berlin; Koeln: Kohlhammer Verlag, 1933-1979.

<Abstract>

**A Proposal of New Transcription for New Testament Proper Names (2):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Jeongsoo Park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develop a new theory or method of Greek transliteration but rather it is an attempt to establish a ‘policy’ for transcription that will provide a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hereafter NKRV). The principle of revising the transcription of proper names in the NKRV should be ‘minimal revision,’ despite the purpose of improving cultural disparity or difficulties in social communication.

There has never been a single clear set of transcription principles for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o it may seem like the NKRV is an unprincipled rendering of a Greek phonetic system or pronunciation of proper names, but there is indeed a consistent transcription. The primary task of this paper is to write a transcription principle by stating its consistency and concisely and listing examples.

The Catholic Church published the Bible (2005), and to aid in understanding, the Bible Committee of the Bishop’s Conference published a separate volume of the annotated Bible titled “Principles of Transcription and List of Leniency and Exceptions for Biblical Proper Nouns.” This document is a practical guide that compiles necessary items for the Korean transcription of proper nouns from the Old Testament Hebrew and New Testament Greek, including existing leniency and exceptions. In my paper, the principles of transcription of proper names in the NKRV are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o allow for a comparison of the Catholic and Protestant principles of transcription of proper names.

The categories of leniency are divided and explained, and they must be synthesized and written systematically. This second task has been presented in detail in my previous published papers, hence here I will summarize the key points and write a more concise set of ‘detailed rules.’ Finally, these principles and detailed rules will be applied to all transcriptions of proper nouns in the New Testament. This task involves transcribing approximately 700 proper nouns, but

due to space limitations, this paper will only extract and present the proper nouns that replace the NKRV's transcription method.

<부 록>

표기 사항설명: 설명이 없는 고유명사는 “표기 원칙(案)”을 따름.

표준국어=『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음역.

원지음표기=표준국어는 아니지만 널리 사용되는 음역.

히./라./그.음역=원천어(히브리어/라틴어/그리스어)로 음역.

연속된 인지명=문장 안에 연속된 고유명사는 같은 방식으로 음역.

그리스어에 붙은 수=동일한 고유명사 중 하나(예. 동명이인 등).

1. 지명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Ἄζωτος	아스돗	아스돗	아소도	아스돗	히.지명
Ἀθῆναι	아테네	아테네	아텐	아테네	표준국어
Αἴγυπτος	이집트	이집트	애굽	이집트	표준국어
Ἀκελδαμάχ	하켈다마	하켈 드마	아켈다마	하켈다마	
Ἀμφίπολις	암피폴리스	암피폴리스	암비볼리	암피폴리스	표준국어
Ἀντιόχεια-2	안티오키아	안티오키아	안디옥	안티오키아	표준국어
Ἄρειος Πάγος	아레오파고스	아레오파고스	아레오바고	아레오파고스	원지음표기
Ἀρμαγεδών	아마겟돈	하르마게돈	아마게돈	하르마게돈	
Ἀχαΐα	아카이아	아카이아	아가야	아카이아	원지음표기
Βαβυλών	바빌론	바빌론	바벨론	바빌론	
Βιθυνία	비티니아	비티니아	비두니아	비디니아	
Γαββαθα	가바다	가빠타	가바다	갑바다	
Γάζα	가자	가자	가사	가자	표준국어
Γαλατικός	갈라티아	갈라티아	갈라디아	갈라디아(의)	
Γεννησαρέτ	게네사렛	겐네사렛	게네사렛	젠네사렛	
Δαμασκός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다메섹	다마스쿠스	라.음역
Δεκάπολις	데카폴리스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원지음표기
Εὐφράτης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	유브라테	유프라테스	표준국어
Θυάτειρα	두아디라	티아티라	두아디라	디아디라	
Ἴδουμαία	이두매아	이두매아	이두매	이두매아	
Ἱεράπολις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	원지음표기
Ἰλλυρικόν	일리리쿰	일리리쿰	일루리곤	일리리곤	

(2)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Ἰορδάνης	요르단	요르단	요단	요르단	표준국어
Ἰουδαία	유대아	유다	유대	유대아	지명
Ἰουδαῖος-1	유대아 지역 유대아 유대아사람	유다 유대인 유대의	유대 유대인 유대의	유대아(의) 유대인(의) 유대교(의)	
Ἰούδας-10	유대아 (나라)	유다	유대, 유다	유다	히.음역 (인명, 나라명)
Ἰταλία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달리아	이탈리아	표준국어
Ἰταλικός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달리아	이탈리아	
Καيسάρεια	카이사레아	카이사리아	가이사라	카이사리아	원지음표기
Καπαδοκία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갑바도기아	카파도키아	표준국어
Κεγγρεαί	켁그레아	켁크레애	젠그레아	켁그레아	예외(아이>애).
Κνίδος	크니도스	크니도스	니도	크니도스	연속된 지명 (행 27:7)
Κρήτη	크레타	크레타	그레테	크레타	표준국어
Κύπρος	키프로스	키프로스	구브로	키프로스	표준국어
Κυρήνη	키레네	키레네	구레네	키레네	표준국어
Κώς	코스	코스	고스	코스	연속된 지명 (행 21:3)
Λαοδίκεια	라오디케아	라오디케이아	라오디케이아	라오디기아	
Λιβύη	리비아	리비아	리비야	리비아	표준국어
Λύδδα	룻다	리따	룻다	룻다	
Λυκαονία	루가오니아	리카오니아	루가오니아	리가오니아	
Λυκία	리키아	리키아	루기아	리기아	
Λύστρα	루스드라	리스트라	루스드라	리스드라	
Μακεδονία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마케도냐	마케도니아	표준국어
Μελίτη	몰타	몰타	멜리테	몰타	표준국어
Μεσοποταμία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메소보다미아	메소포타미아	표준국어
Μίλητος	밀레토스	밀레토스	밀레도	밀레토스	표준국어
Μιτυλήνη	미틸레네	미틸레네	미둘레네	미딜레네	
Μύρα	무라	미라	무라	미라	
Μυσία	미시아	미시아	무시아	미시아	
Νέα Πόλις	네아폴리스	네아폴리스	네암볼리	네아폴리스	원지음표기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Νικόπολις	니코폴리스	니코폴리스	니고볼리	니코폴리스	원지음표기
Πάταρα	파타라	파타라	바다라	파타라	연속된 지명 (행 21:1)
Πάφος	파포스	파포스	바보	파포스	원지음표기 (예외)
Πέργαμος	페르가몬	페르가몬	버가모	페르가몬	표준국어
Πόντος	폰토스	폰토스	본도	폰토스	표준국어
Πτολεμαῖς	프톨레마이스	프톨레마이스	톨레마이	프톨레마이스	표준국어
Ῥήγιον	레기움	레기움	레기온	레기움	라.음역
Ῥόδος	로도스	로도스	로도	로도스	표준국어
Σαλαμίς	살라미스	살라미스	살라미	살라미스	표준국어
Σαλείμ	살렘	살림	살렘	살림	요 3:23(ε<g>)
Σαμοθράκη	사모트라케	사모트라케	사모드라케	사모트라케	표준국어
Σάμος	사모스	사모스	사모	사모스	표준국어
Σάρδεις	사르디스	사르디스	사데	사르디스	표준국어
Σαρών	샤론	사론	사론	샤론	히.음역
Σελεύκεια	셀레우키아	셀레우키아	실루기아	셀레우키아	표준국어
Σιδώνιος-2	시돈의	시돈의	시돈 땅	시돈(의)	
Σινᾶ	시나이산	시나이산	시내	시나이	
Σμύρνα	스미르나	스미르나	서머나	스미르나	표준국어
Σπανία	스페인	에스파냐	서바나	스페인	표준국어
Συράκουσαι	시라쿠사	시라쿠사	수라구사	시라쿠사	표준국어
Συρία	시리아	시리아	수리아	시리아	표준국어
Σύρτις	시르티스	시르티스	스르디스	시르디스	
Ταρσός	타르수스	타르수스	다소	타르수스	표준국어
Τιβεριάς-2	티베리아스 (바다)	티베리아스 (호수)	디베랴	티베리아스	표준국어
Τρωάς	트로아스	트로아스	드로아	트로아스	원지음표기
Τύρος	티레	티로	두로	티레	표준국어
Φιλαδέλφεια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	표준국어
Φοινίκη	페니키아	페니키아	베니게	페니키아	표준국어
Φρυγία	프리기아	프리기아	브루기아	프리기아	표준국어
Χίος	키오스	키오스	기오	키오스	표준국어

2. 인명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Ἄγαθος	하가보	하가보스	아가보	하가보	
Ἀδμίν	아드민	아드민	아니	아드민	그.음역
Ἀδραμυτηνός	아드라뫼테노	아드라미티움	아드라뫼테노	아드라뫼테노	
Αἰνέας	아이네이스	애네아스	애니아	애네아	
Ἀκύλας	아퀼라	아퀼라	아굴라	아길라	
Ἀλέξανδρος-5	알렉산더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알렉산드로	
Ἀμπλιᾶτος	암블리아도	암플리아투스	암블리아	암블리아도	
Ἀνανίας-3	하나냐	하나니아스	아나니아	하나냐	히.음역
Ἄννα	한나	한나	안나	한나	
Ἄννας	한나스	한나스	안나스	한나스	
Ἀντιοχεύς	안티오키아 사람	안티오키아 출신	안디옥 사람	안티오키아 사람	
Ἀρφαξάδ	아르박삿	아르팍삿	아박삿	아르박삿	히.음역 (대상 1:18등)
Ἀσύκριτος	아순그리도	아싱크리토스	아순그리도	아싱그리도	
Βαραββᾶς	바르압마	바라빠	바라바	바랍마	
Βαραχίας	베레갸	베레크야	바라갸	베레갸	히.음역
Βαρσαββᾶς-2	바르삽마	바르사빠스	바사마	바삽마	
Δάμαρις	다마리스	다마리스	다마리	다마리스	연속된 지명 (행 17:34)
Δίδυμος	쌍둥이	쌍둥이	디두모	디디모	각주. 쌍둥이
Διονύσιος	디오니시우스	디오니시오	디오누시오	디오니시오	
Διόσκουροι	디오스쿠로이	디오스쿠로이	디오스구로	디오스쿠로이	각주. 제우스의 두 아들
Ἔβερ	에벨	에베르	헤버	에벨	히.음역
Ἐλιέζερ	엘리에셀	엘리에제르	엘리에서	엘리에셀	히.음역
Ἐλύμας	엘루마	엘리마스	엘루마	엘리마	
Ἑρμῆς-2	헤르메스	헤르메스	허메	헤르메스	표준국어
Εὐβούλος	유볼로	에우볼로스	으볼로	유볼로	
Εὐτύχος	유두고	에우티코스	유두고	유디고	
Ζαχαρίας-1	스가라	즈카르야	사가라	스가라	히.음역
Ζαχαρίας-2	스가라	즈카르야	사가라	사가라(요한)	그.음역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의 아버지)	(동화된 이름)
Ἰανναί	얀나	얀나이	얀나	얀내	
Ἰούλιος	율리우스	율리우스	율리오	율리우스	라.음역
Ἰουῦτος-3	유스투스	유스투스	유스도	유스투스	라.음역
Ἰωσῆς-1	요세	요세	요셉	요세	
Κλαύδιος-2	클라우디우스	클라우디우스	글라우디오	클라우디우스	라.음역
Κλεοπάς	글레오바	클로파스	글로바	글레오바	
Κλήμης	클레멘트	클레멘스	글레멘드	글레메	Κλήμεντος의 주격
Κορνήλιος	코르넬리우스	코르넬리우스	고넬료	코르넬리우스	라.음역
Κυρήνιος	키레니우스	퀴리니우스	구레뇨	키레니우스	라.음역
Λάμεχ	라멕	라멕	레멕	라멕	
Λούκιος-2	루키우스	루키오스	루기오	루키우스	라.음역
Λυδία	리디아	리디아	루디아	리디아	
Λυσανίας	루사니아	리사니아스	루사니아	리사니아	
Λυσίας	리시아스	리시아스	루시아	리시아스	표준국어
Μνάσων	므나손	므나손	나손	므나손	
Νάρκισσος	나르키소스	나르키소스	나깃수	나깃소	그.이름
Νηρέυς	네레우스	네레우스	네레오	네레우스	라.음역
Νύμφα	눔파	눔파	눔바	눔바	
Ὀλυμπᾶς	올림바	올림파스	올름바	올림바	
Παῦλος-2	바울	바오로	바울	파울루스 (세르기우스)	로마 총독 (라.음역)
Περσίς	페르시스	페르시스	버시	페르시스	예외(페르시아 파생어)
Πόρκιος	포르키우스	포르키우스	보르기오	포르키우스	로마 총독 (라.음역)
Πόρρος	부로	피로스	부로	비로	
Σαλά-2	셀라	셀라	살라	셀라	히.음역
Σεμεῖν	세메인	시므이	서머인	세메인	구약에 없음 (그.음역)
Σέργιος	세르기오	세르기우스	서기오	세르기우스	로마 총독 (라.음역)
Σκευᾶς	스게와	스케우아스	스게	스규아	
Στάχυς	스다구	스타키스	스다구	스다기	

(6)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Συντόχη	순두게	신티케	순두게	신디게	
Σώπατρος	소바더	소파테르	소바더	소바드로	
Σωσίπατρος	소시바더	소시파테르	소시바더	소시바드로	
Τέρτιος	더디오	테르티우스	더디오	테르티우스	라.음역(이름)
Τιβέριος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디베료	티베리우스	현대표준국어
Τίτιος	티티우스	티티우스	디도	티티우스	라.음역(이름)
Τρύφαινα	드루베나	트리패나	드루베나	드리베나	
Τρυφῶσα	드루보사	트리포사	드루보사	드리보사	
Τύραννος	튀란노스	티란노스	두란노	디란노	
Τύχικος	두기고	티키코스	두기고	디기고	
Υμέναιος	후메나이오스	히메내오스	후메내오	히메내오	
Φηλιξ	펠릭스	펠릭스	벨릭스	펠릭스	로마 총독 (라.음역)
Φηστος	베스도	페스투스	베스도	페스투스	로마 총독 (라.음역)
Φοίβη	뵤베	포이베	뵤뵤	뵤베	
Φορτουνάτος	포르투나토스	포르투나투스	브드나도	보두나도	
Φύγελος	부겔로	피겔로스	부겔로	비겔로	

3. 인종, 언어, 집단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Ἀβαδδών	아바돈	아바똘	아바돈	아뵤똘	
Ἀπολλύων	아폴리온	아폴리온	아블루온	아블리온	
Ἄρτεμις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아데미	아르테미스	표준국어
Αὐγοῦστος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표준국어
Μεσσίας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Ἀθηναῖος	아테네 사람	아테네인	아텐	아테네 사람	
Αἰγύπτιος	이집트 사람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표준국어
Αἰθίοψ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표준국어
Γαδαρηνός	가다라 사람	가다라인	가다라	가다라인	
Γαλιλαῖος	갈릴래아 사람	갈릴래아 사람	갈릴리인 갈릴리	갈릴래아인 갈릴래아	
Δαμασκηνός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	다메섹 사람	다마스쿠스	표준국어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사람	사람		사람	
Δερβαῖος	더베 사람	테르베 사람	더베 사람	더베 사람	
Ἑβραῖος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히브리파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Ἑβραῖστί	히브리말로 히브리말	히브리말로 히브리말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Ἑλλάς	그리스	그리스	헬라	헬라스	명.그리스본토
Ἕλλην	그리스 사람	그리스 사람	헬라 헬라인	명.헬라인, 형.헬라(계)	
Ἑλληνίς	그리스(여자)	그리스(여자)	헬라의 헬라인(여자)	명.헬라인 (여자) 형.헬라(계)	
Ἑλληνιστής	그리스말을 쓰는(사람)	그리스인 그리스 사람	헬라파 유대인	헬라계 유대인	(범그리스) 헬레니즘계 사람
Ἑρῳδιανοί	헤롯당 사람들	헤로데 당원	헤롯 당	헤롯 사람들	
Ἰουδαϊκός	유대아 사람들이 지어낸	유대인	유대인	유대인(의) 유대교(의)	비교. 유대교 (Ἰουδαϊσμός)
Ἰουδαϊκῶς	유대아 사람답게	유대 사람	유대인	유대인처럼	
Ἰτουραῖος	이두래아	이투래아	이두래	이투래아 사람	
Κορίνθιος	코린트 사람	코린토 사람	고린도 사람 고린도인	고린도 사람 고린도인	관용
Κρής	크레타 사람	크레타 사람	그레테인	크레타인	표준국어
Κύπριος	키프로스 사람	키프로스 사람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사람	표준국어
Κυρηναῖος	키레네 사람	키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키레네 사람	표준국어
Λευίτης	레위 사람	레위인	레위족 사람 레위인	레위 사람 레위인	눅 10:32; 요 1:19; 행 4:36 모두 통일
Λευιτικός	레위 계통	레위 자손	레위 계통의	레위 자손의	
Λυκαονιστί	루가오니아 말	리카오니아 말	루가오니아 방언	리카오니아 말	원지음표기
Μακεδών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	마케도냐	마케도니아 사람	표준국어

(8) 「성경원문연구」 55 (2024. 10.)

NTG <sup>28</sup> (GNT <sup>5</sup> )	새한글	가톨릭	개역개정	개정 제안	표기 원칙 설명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Μῆδος	메디아 사람	메디아 사람	메대인	메디아 사람	표준국어
Νικολαΐτης	니콜라우스당 사람	니콜라오스파	니콜라 당	니콜라 사람	αἰρέσις는 '-파', 그 외 '-사람(인)'
Νινευίτης	니네베 사람	니네베 사람	니느웨 사람	니네베 사람	히.음역
Πάρθος	파르티아 사람	파르티아 사람	바대인	파르티아인	표준국어
Ῥωμαῖος	로마 사람 로마 시민	로마인 로마 시민	로마인 로마 사람	로마인 로마 시민	
Σαμαρίτης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Σκύθης	스키타이 사람	스키타이인	스구디아인	스키타이인	표준국어
Σύρος	시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	수리아	시리아 사람	표준국어
Συροφονίκισσα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표준국어
Ταρσεύς	타르수스 사람 타르수스 출신	타르수스 사람 타르수스 출신	다소 사람 다소 출신	타르수스 사람 타르수스 출신	표준국어
Τύριος	티레 사람	티로 사람	두로 사람	티레 사람	표준국어 (라.음역)
Φαρισαῖος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파	바리사이	바리새인 바리새파	바리새인	바리새인으로 통일
Χαλδαῖος	칼데아 사람	칼테이인	갈대아 사람	칼데아 사람	표준국어